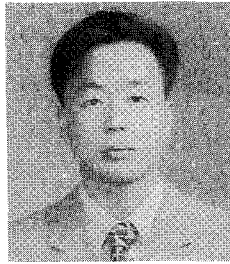


『목장탐방』

앞서가는 목장을 찾아서

— 경기 의왕, 예원목장 —



유우개량팀
검정과 임요순

1. 육성우 2두로 낙농시작

경기도 의왕시 인덕원 사거리에서 청계사쪽으로 3km 정도 따라 들어가다보면 우뚝 솟은 아파트촌 넘어 펼쳐진 밭들이 보인다.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곳, 아니면 도심속의 전원애 자신의 삶을 낙농업에 걸고 있는 전영광씨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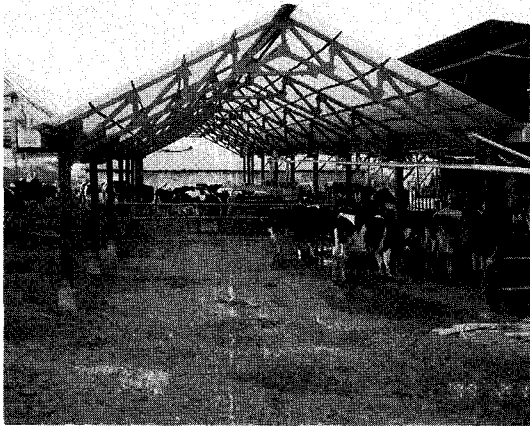
1973년 12월 육성우 2두로 낙농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아버지! 자금부족과 낙후된 시설로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낙농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자금을 마련하고 과천이나 판교까지 나가 들풀을 베어 소 먹이를 사용했다고 늘 말씀하셨다고 한다. 8형제 중 5형제가 낙농을 하고 계시는 전영광씨 집안

내역을 보더라도 낙농 사랑이 유달랐음을 느낄 수가 있다. 하지만 전영광씨는 낙농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작은 아버지의 권유로 목장일을 시작했지만 선풍 내키지는 않았고.

우연한 기회에 화성에 위치한 흥원목장을 견학하고 한 순간에 변해버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량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남들처럼 농후사료와 볏짚으로만 관리하는 그저 평범한 예원목장에 비해 흥원목장은 산유량과 유대, 개량, 사양,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것을 보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20여년간 천직으로 여기시던 아버지의 목장이 경쟁력을 잃어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영광씨는 종축개량과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본회와 인연을 맺고

등록과 선형심사를 실시하여 계획교배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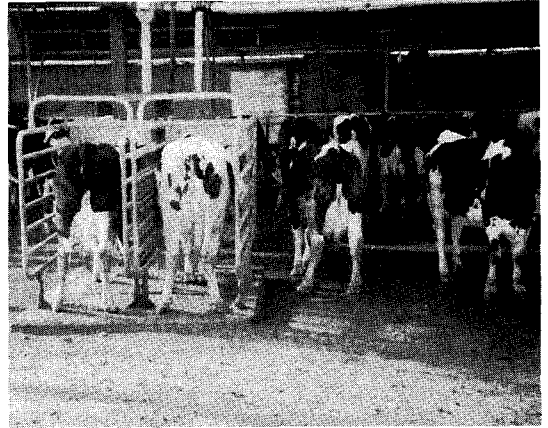


〈사진 1〉 예원목장 전경

2. 두당 산유량 20kg이던 예원목장의 변화

96년 1월 착유우 40두에 일일 납유량 800kg, 두당 산유량 20kg이었던 예원목장이 종축 개량이란 집념으로 과감하게 16두(저능력우, 체세포, 번식장애)를 도태시키고 육성우와 초임우에게 양질의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해주면서 수단 그라스 청초와 벧짚을 탈피하고 사료 작물포 12,000평(임대)을 얻어 옥수수과 호맥을 이모작하여 사일레지를 만들어 주었다. 마침 그때 제8회 고능력우 젖소평가 및 경매행사가 개최된다는 말을 듣고, 전영광씨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돈으로 동 행사에서 초임우 7두를 구입하고 사람위주의 사육환경보다는 젖소 위주의 사육환경으로 시설을 고쳐주고 사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자동급이

기도 설치하여 주었다. 사료자동급이기는 산유량증대와 질병예방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고 본다.



〈사진 2〉 자동급이기에서 농후자료를 먹는 우공들

97년 1월부터 검정을 받기 시작하여 첫째 1월 29일자 검정성적을 보면 7두 305일 검정성적이 7,598kg, 유지율 3.7%, 97년 6월 28일자 17두, 305일 검정성적 8,876kg, 유지율 3.5%, 97년 12월 27일자 24두, 305일 검정성적 8,653kg, 유지율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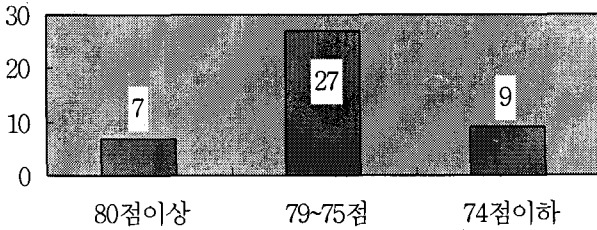
98년 8월 26일자 38두, 305일 검정성적 9,251kg, 유지율 3.8%, 성년형 성적이 10,807kg, 유지율 3.7%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브루셀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 조산 15두로 인하여 검정성적이 조금은 내려오는 추세이다. 그렇지만 최근 6개월 성적을 보면 평균 28.3kg을 유지하고 있어 계속 향상되리라 생각된다.

현재는 평균산차 1.9산차이고 1~2산에 대한 검정성적도 좋고 선형심사도 좋기 때문에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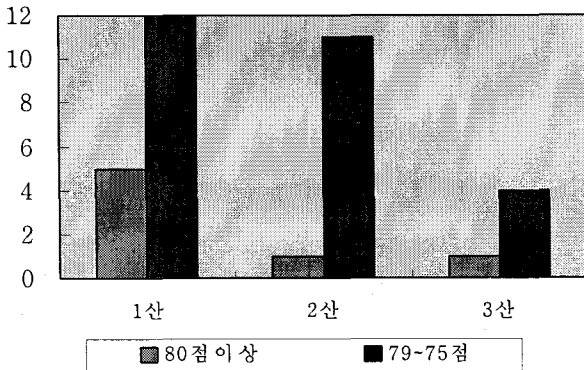
족하고 있다.

우군평균 선형심사 점수가 76.6점이고 1~2 산차에 좋은 성적을 갖고 있기에 시간이 흐르면 두당 산유량 33~35kg의 목표는 가능할거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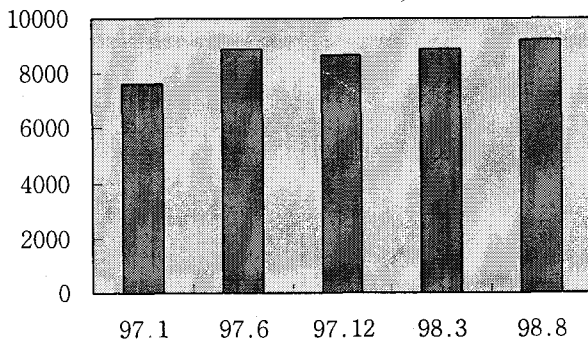
우군 전체 선형심사 점수



산차별 선형심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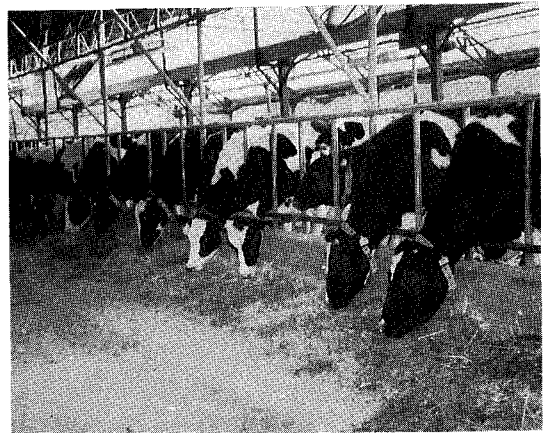
305일 산유량



3. 예원목장의 계획

예원목장은 불과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저능력우의 과감한 도태와 우수한 후보우를 사육관리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전영광 씨는 자신있게 말한다.

지역 검정회나 타목장에서 수차례 견학을 오지만 겸허한 자세로 맞이하며 처음에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지적해 주고 벗짚우주의 사양관리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주먹구구식 사양이 아닌 체계적인 사양관리와 과학적으로 변화를 준다면 얼마든지 고능력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말해준다. 현재는 계류식 우사 120평, 운동장 300평, 육성우 우사 150평 정도로 사육하고 있지만 목장부지가 그린벨트라는 점에서 시설투자보다는 두당 산유량 35kg 목표로 정예화 우군을 만들기 위해 종축개량에 전념 할 것이라 힘주어 말하는 영광씨 앞에 IMF의 긴터널과 어려운 축산현실도 극복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긴다.



〈사진 3〉 엔실리지 및 양질의 조사료 섭취광경